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오늘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주홍글씨〉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아침	40 아침 연속극 〈장미의 전쟁〉
30 KBS 뉴스	00 희망 릴레이 20 아침 드라마 〈사랑하길 잘했어〉 50 여유만만	9	30 MBC 뉴스 45 기분좋은 날	30 좋은 아침
00 국회 인사 청문회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10		40 SBS 뉴스
	00 지구촌 뉴스 20 생생 정보통 스페셜	11	00 드라마 특선	0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00 월화 드라마 〈드림하이〉(재)	12	00 MBC 뉴스와 경제 25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 사는 세상	00 SBS 12 뉴스 30 신년특별기획 열린 大 토론회
00 KBS 걸작선 〈결혼해주세요〉(재)		1	15 문화四色	30 마님의 식탁
00 KBS 뉴스 10 KBS 월요특강	10 세번의 만남(재)	2	15 통일전망대	00 SBS 뉴스 10 국회 인사 청문회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15 콘서트 필 및 재방송(재)	00 KBS 뉴스타임 05 꼬마과학자 시드(재) 3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	05 네트워크 특선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TV 〈춘천〉	00 TV 유치원 30 쥬로링 동물탐정	4	00 MBC뉴스 10 뽀뽀뽀 아이조아 40 창작만화	00 스캔2고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30 성공예감	5	10 세상사전 스페셜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출산장려프로젝트 〈아이가 미래다 7부〉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00 MBC 6시 뉴스매거진	00 출동 명물포착 30 생방송! KBC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우리말 겨루기	10 생생정보통	7	00 생방송 전국시대 45 일일시트콤 〈몽땅 내 사랑〉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호박꽃 순정〉
25 일일연속극 〈웃어라 동해야〉	40 KBS뉴스타임〈광주전남〉 50 위기탈출 넘버원	8	15 일일연속극 〈폭풍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월화드라마〈괜찮아 아빠딸〉
00 KBS 뉴스9	50 KBS 뉴스타임 55 월화드라마 〈드림 하이〉	9	50 MBC 스포츠 뉴스 55 월화드라마 〈역전의 여왕〉	55 SBS대기획 〈아테나〉
00 가요무대		10		
00 KBS 뉴스라인 40 과학카페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1	05 행복한 문화마을 꿈꾸리	15 밤이면 밤마다
25 KBS 뉴스 35 낭독의 발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 특강	12	1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 라인 45 씨네포트

EBS

06:00 세계테마기행 〈남아시아의 등불, 방글라데시〉
06:40 한국기행〈포항〉
07:00 신나는 인생 5678
07:30 세계자연문화 유산
07:35 빨간머리 앤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키득키득 맛있는 실험실
08:30 꼬마버스 타요
08:45 빵귀대장 뿡뿡이
09:00 뽀롱뽀롱 뽀로로
09:15 치로의 클래식 동요
09:25 깨미랑 부카채카
09:35 제로니모의 모험
10:00 EBS 10시 뉴스
10:10 60분-부모
11:10 최고의 요리비결 〈박경신의 맛있는 겨울방학 특선요리〉
11:40 생방송 교육마당
12:30 세계의 교육현장
13:00 EBS 스페이스 공감
13:50 프로열전 〈소물리아〉
14:20 세계테마기행 스페셜 〈구름의 땅, 중국 윈난〉
15:0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5:2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5:4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16:00 레온
16:05 뚜바뚜바 눈보리
16:20 호기심 대장 포코요
16:30 또또바를 찾아라
16:40 싱글벙글 피지
16:50 톰소여의 모험
17:15 수퍼 와이
17:40 특수요원 오소(재)
18:05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19:05 삼국지
19:30 한자 교육 드라마 〈어린이 孫子兵法〉
20:00 세계의 교육현장 〈쿠바편〉
20:30 EBS 뉴스
20:45 지식채널 ⓔ
20:50 세계테마기행 〈엄홍길의 쿰부 히말라야 기행〉
21:30 한국기행〈포항〉
21:50 다큐의 재구송
22:40 다큐 인생 2막
23:10 신년기획 하버드 특강 〈정의〉
00:05 다큐 10+
00:55 세계테마기행 스페셜 〈사진작가 김홍희의 볼리비아 방랑〉

EBS플러스1

04:10 수능열기 예비 고3 〈김세식샘의 수학Ⅱ〉
05:00 고1 예비과정 〈국어〉
05:50 〃 〈영어〉
06:40 수능 길잡이 〈손광균샘의 적분과 통계〉
07:30 〃 〈김경한 샘의 기하와 벡터〉
08:20 〃 〈수단비 정현경샘의 미적분과통계 기본〉
09:10 〃 〈비문학〉
11:20 수능 길잡이 〈문학〉
12:10 〃 〈영어독해 구문편〉
13:00 수능열기 예비 고2 〈언어영역〉(재)
14:00 수능열기 예비 고3(재) 〈심샘의 수학Ⅰ〉
15:00 〃 〈김세식샘의 수학Ⅱ〉(재)
16:00 고1예비과정 〈국어〉(재)
17:00 수능 길잡이 〈영어독해 유형편〉
18:00 고1 예비과정 〈영어〉(재)
19:00 수능 길잡이 〈비문학〉(재)
20:00 〃 〈손광균샘의 적분과 통계〉(재)
21:00 〃 〈김경한 샘의 기하와 벡터〉
22:00 〃 〈수단비 정현경샘의 미적분과통계 기본〉(재)
23:00 수능 길잡이 〈문학〉(재)

EBS플러스2

08:00 경찰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8:30 초등수학-매스트레이닝
09:00 중1 예비과정 〈국어〉
09:40 〃 〈영어〉
10:20 중학 국어문법 특강
11:00 왕초보 중학영어 〈독해〉
11:40 잊혀져 가는 것 들 Ⅱ
11:50 중1 예비과정 〈수학〉
12:30 중2 예비과정 〈국어〉
13:10 〃 〈영어〉
13:50 왕초보 중학영어-리스닝
14:30 EBSe 초등영어
14:50 EBS 클립뱅크(2)
15:10 Sing Sing 영어동요
15:20 GO GO Timegirl(L2)
15:40 Word Circus(L2)
16:00 Wow! Gameland(L3)
16:20 초등 1년 겨울방학 생활
16:40 초등 3년 겨울방학 생활
17:00 초등 5년 겨울방학 생활
17:20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
17:50 중학 국어 문법 특강(재)
18:30 중2 예비과정 〈수학〉
19:10 중3 예비과정 〈국어〉
19:50 〃 〈영어〉
20:30 〃 〈수학〉
21:10 중1 예비과정 〈국어〉(재)
21:50 〃 〈영어〉(재)
22:30 중3 예비과정 〈영어〉(재)
23:10 왕초보 중학영어 독해(재)

현빈·하지원 신드롬을 만들다

김은숙 작가 '시크릿가든' 캐스팅 뒷 이야기

16일 종영하는 SBS TV '시크릿 가든'은 현빈과 하지원 신드롬을 만들었고 윤상현과 김사랑이 연기자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성과를 냈다.

종영을 하루 앞두고 15일 만난 '시크릿 가든'의 김은숙 작가로부터 네 배우의 캐스팅에 얽힌 뒷이야기와 그들의 연기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넷 중 가장 먼저 캐스팅된 하지원은 길라임의 직업도 모른 상태에서 영혼이 뒤바뀌는 설정의 이야기라는 것만 듣고 출연을 결정했다.

김 작가는 "평소 하지원 씨와 작업해보고 싶었다. 길라임의 직업이 스턴트우먼으로 정해졌다고 알려주자 그때도 바로 '좋아요'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배우가 그렇게 열심히 해줄 수 없다. 체력도 대단하고 여배우임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자세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다. 스타지만 뭐든 성실히 하는 대단한 배우"라며 "잠을 못자는 빠듯한 스케줄에 어쩌다 1시간 휴식 시간이 나도 30분 씻고 30분 운동을 하고 나온다. 자면 얼굴이 붓는다며 30분간 줄넘기를 하고 나오는 이 배우를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극찬했다.

김주원 역에는 애초 장혁이 캐스팅됐다. 그러나 그가 계약 문제로 하차하면서 제작진은 절박한 심정으로 현빈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이번 드라마 첫 미팅 때 너무 말이 없어 숫기가 없는 줄 알았다. 보통 작가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마련인데 현빈 씨는 아무런 말이 없더라"며 "그런데 촬영한 것을 보니 김주원과 너무나 잘 어울렸다"고 덧붙였다.

윤상현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코믹했다. 그는 솔직하고 유쾌한 오스카 역에 적역이었다.

"윤상현 씨는 첫 만남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을 받았어요. 배우들마다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오스카 역은 윤상현 씨로부터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이미 윤상현 씨가 주인공급으로 올라선 때였지만 가수 역할에 대한 욕심이 크더라고요. 너무 해보고 싶었던 역이라며 주인공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해서 바로 캐스팅했는데 오스카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윤슬 역의 김사랑은 그가 가진 의외성에 캐스팅을 했다.

"첫 만남에서 너무 의외였어요. 새침할 줄 알았는데 말도 잘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데다 털털하더라고요. 예쁜 사람이 털털하기까지 하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초반의 과장된 오버 연기는 잘 안 어울렸지만 중반 이후 애련한 연기를 잘 소화했습니다. 애련한 표정이 아주 잘 나와 분위기가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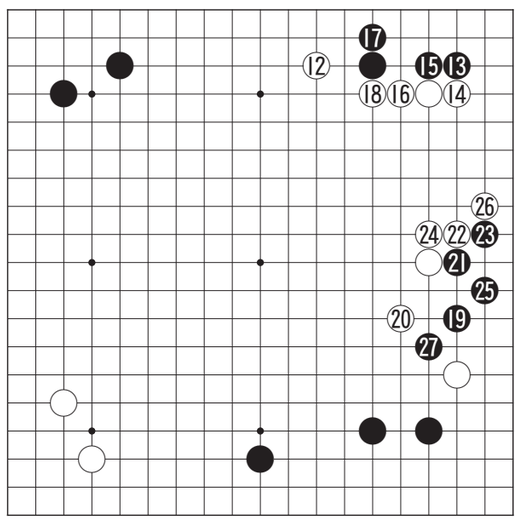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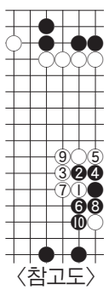
제7회 서구청장배

기분좋은 문도원의 7연승

최강부 8강전 2보(12~27)

白 심재욱 6단 黑 박제훈 5단





〈참고도〉

새해 벽두부터 즐거운 소식으로 바둑계가 흥분상태에 빠져있다. 여류기사인 문도원 2단이 중국 항정우에서 열린 제9회 정관장배 세계 여자바둑최강전에서 중국과 일본의 여류강자들을 연파하며 7연승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이전의 기록은 조선족인 중국의 송용혜 5단의 6연승으로 이 기록을 가뿐히 뛰어넘는 쾌거였다. 앞으로 남은 선수는 중국 2명과 일본의 1명 뿐으로 잘하면 전무후무한 10연승의 대기록을 노릴 법도 하다. 3월에 열릴 2차전을 기대해 본다.

흑 19로 우변에 쳐들어 왔을 때가 선택의 기로로 어려운 장면이다. 이때 박제훈 5단이 백 20으로 모자를 씌웠는데 많이 생각한 수다. 제일감은 '참고도'의 백 1로 붙이고 9까지 우변을 확보하는 것이나 흑 10까지 되고보면 우변보다 우하귀의 흑집이 오히려 커져서 백의 불만이다. 우변의 폭이 너무 좁다.

이렇게 되면 흑 21로 붙이고 23으로 이단젖히는 것이 맥점으로 27까지 예상된 타협이 이루어졌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7일(음 12월 14일 壬申)

子 36년생 부부간 사소한 언쟁 있으나 이해로 애정 새롭다. 48년생 상황은 어려워지지만 해결 기미 보인다. 60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 할 시기. 72년생 생각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84년생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삼사일언해야. 행운의 숫자 : 23,43

丑 37년생 쌓아놓은 권부 버려야 할 수 있으니 신중히 처신하라. 49년생 가족의 변동이 예상되나 북쪽은 길하다. 61년 생 외출을 삼가 하면 소화도 막는다. 73년생 위장이 괴로우니 조심해야. 85년생 자식 살펴보라 좋은 일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8,32

寅 38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고 돌진하라. 50년생 주변에 새로운 일이 생기나 결과는 미지수다. 62년생 준비를 단단히 하라 첩첩 산중이다. 74년생 지나간 일도 다시 한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0,42

卯 39년생 하는 일이 불안하다 속사정을 살펴보라. 51년생 가족의 식구가 늘어나는 경사가 생길 수도 있다. 63년생 건강과 재물이 한꺼번에 위험하다. 75년생 구설수로 사면초가니 언행을 삼가하라. 행운의 숫자 : 06,28

辰 40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나 언행을 조심하면 오히려 친구를 얻는다. 52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64년생 기다리는 소식은 없고 마음은 어지럽다. 76년생 꿩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기나 결과는 반반이다. 행운의 숫자 : 13,41

巳 41년생 남편을 이해하라 고민에 빠졌다. 53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으리라. 65년생 돈은 생기나 쓸 구멍이 더 많다. 77년생 미운 사람이 보이면 조용히 피하라. 행운의 숫자 : 24,27

午 42년생 아내의 얼굴을 살펴보라 좋은 일이 생겼구나. 54년생 아침부터 서두르나 결과는 없다. 66년생 안과계의 검진을 해보라. 78년생 어려움은 있어도 결과는 좋은 쪽에 있다. 행운의 숫자 : 20,39

未 43년생 온고지신 모든 옛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길사가 있으리라. 55년생 일보전진을 위해 이보후퇴를 해도 늦지 않다. 67년생 명예를 먹칠하는 구설이 생긴다. 79년생 자신의 죄를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6,22

申 44년생 죽마고우의 친구를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아라. 56년생 진퇴양난이지만 돌파구는 보인다. 68년생 짊어진 재물을 형제와 나누어 보라 기쁨은 배가 된다. 80년생 촌음을 아껴 써도 하루해가 짧도다. 행운의 숫자 : 15,33

酉 45년생 칭찬을 아끼지 마라 부하가 무심하다. 57년생 큰 소비가 생길 수 있다. 69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소득은 미미하다. 81년생 고자질하는 부하가 보이니 사전에 단속하면 구설은 없다. 행운의 숫자 : 11,34

戌 46년생 금의야행 격이니 노력은 했으나 결과는 빛이 없다. 58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니 욕심을 버려라. 70년생 능력을 발휘하나 칭찬이 없다. 82년생 바늘허리 못 메어 쓰니 서두르면 실패한다. 행운의 숫자 : 12,30

亥 47년생 상전이 벽해가 되고 벽해가 상전되니 자신을 돌아보라. 59년생 성급한 결정은 매사가 헛일이다. 71년생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니 상대방을 인정하면 평화롭다. 83년생 소신껏 행동하면 상사의 인정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8,37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It looks very well thought out

매우 노력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A : Excuse me, Mary. I thought you might like to see how the poster is coming along.
B : Yes. In fact, I just called you about it this morning.
A : I have not been to my desk for a few hours.
B : Oh. Well, the poster looks good.
A : We should be done by tomorrow afternoon.
B : Great. It looks very well thought out.

A : 이봐요, 매리 . 포스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신이 알고 싶어할 것 같았어요.
B : 그래요. 사실, 오늘 아침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전화했었거든요.
A : 몇 시간동안 사무실에 없었어요.
B : 야, 포스터가 멋있어요.
A : 내일 오후까지 마무리 할 것 같아요.
B : 좋아요. 매우 노력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 come along = (일 따위가) (잘) 진행되다
* be done = be finished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何時頃お戻りになりますか。

몇 시쯤 되돌아오십니까

A : 南先生いらっしゃいますか。
B : 先生は今席をはずしています。
A : 何時頃お戻りになりますか。
B : もうすぐ帰ると思います。

A : 미나미 선생님 계십니까.
B : 선생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A : 몇 시경에 되돌아오십니까.
B : 이제 곧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단어정리]

いらっしゃる	오시다, 가시다 계시다
席を外す	자리를 비우다
お戻りになる	돌아오시다
もうすぐ	이제 곧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
http://www.kjasuka.co.kr ☎ 232-1503

니하오 쭝구워

火星文 huǒxīngwén

화성글자

火星文 - 글자 그대로는 화성 언어입니다.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최근 중국에서 10대들이 부호, 번자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등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문자를 말합니다. 2000년 초반 처음 대만의 번체자 입력중 오류 과정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고, 이후 온라인 게임과 메신져 등을 통해 유행되었으며, 지금은 화성문을 입력하거나 번역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10대들 쓰는 용어 보면 한참을 들여다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성세대는 전통을 무시하는 파괴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언어발전에 있어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관망하는 측도 있습니다. 저 또한 시대의 변이에 따른 문화라 여겨집니다. 언어는 생활 속에서 혹은 문명끼리의 충돌 등으로 자연스레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도 창조라면 창조일까요.

(화성문 예 - 洦瑗焱諟☆℃" = "我爱火星文")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孤城落日(고성낙일)

외로울 고, 재 성, 떨어질 락(낙), 날 일

고성낙일(孤城落日)은 적군 속에 고립된 성과 서산으로 지는 해라는 뜻으로, 세력이 다하고 남의 도움이 없는 매우 외로운 처지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당(唐)나라의 시인 왕유(王維)의 칠언절구(七言絶句) 〈송위평사(送韋評事)〉에서 비롯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欲逐將軍取右賢(욕축장군취우현) 장군을 쫓아 우현을 잡고자 沙場走馬向居延(사장주마향거연) 모래땅에 말을 달려 거연으로 향한다. 遙知漢使蕭關外(요지한사소관외) 멀리서 짐작하노니 한나라 사신이 소관 밖에서 愁見孤城落日邊(수견고성락일변) 외로운 성에 지는 해의 언저리를 수심으로 바라볼 것을.

여기서는 쓸쓸한 풍경과 외로운 심정을 노래한 데 불과하지만 보통 '고성낙일'이라 하면, 멸망하는 그날을 초조히 기다리는 심정을 나타낸다.

* 유의어 : 고립무원(孤立無援) - 고립되어 구원받을 데가 없음.
사고무친(四顧無親) - 친척없고 의지할 곳 없이 외로움.

〈대능출판〉
www.daeneungedu.com